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●잡지·출판 고급인력 양성-전문 강좌 인기 / 취업을 높여 수강생 몰려 성황 / 편집·교정·사진·디자인 등 실무도 배워(경향신문 3월 16일 安健赫기자)

●在北작가 작품출판 시비-끝내 법정싸움으로 번져 / '갑오농민전쟁' '두만강' 등 / 출판사끼리, 가족들도 얽혀(서울경제신문 3월 17일 姜升遠기자)

●"전문출판인시대 열린다"-정보 홍수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줄이어 / 경시대 등 4개 대학엔 전공학과 신설 / 대부분 5~6개월코스... 實務·이론 겸해(서울신문 3월 17일 李憲淑기자)

●국내의 기업가전기물 출판러시-현재 20여종...베스트 셀러로 / 「아이야코카 자서전」 히트가 계기, 「테로리안」 「소니스토리」 등 쏟아져 (중앙경제신문 3월 17일 金龍善기자)

●"민족심성 담긴 巫俗 보존해야"-巫神圖 134종 모아 책펴낸 金泰坤 교수 / 韓文化 脈 찾아 30년간 전국 누벼 / 巫具도 3천점...박물관건립이 꿈(경향신문 3월 20일 安健赫기자)

●"한 양심수의 죽음이 소설을 쓰게 했다"-소설 「하얀집의 왕」 펴낸 교도관 洪仁杓씨 / 80년대초 광주교도소 생생하게 그려(중앙경제신문 3월 21일 朴海鉉기자)

●"지역문제 다룬 책 많이 나왔다"-지방의 특성 역사적 사실 등 폭넓게 연구 / '문화의 파수꾼' 자부, 향토지도 선보여(동아일보 3월 21일 宋煥彥기자)

●"옥에서 만난 문인들이 내 문학스승"-감옥사회 저항과 진실 묘사해낸 첫 교도관 출신작가 / 「하얀집의 왕」 흥인표씨 / 양심수로 넘친 80년대초 광주교도소 무대...발표된 동료들에 피해 미칠까봐 걱정태산(한겨레신문 3월 21일 조선희기자)

●국립중앙도서관-대출 빠르고 쉬워진다 / 전산화작업 4월중순 마무리 / 출판사만 알아도 무슨 책이든 빌려볼 수 있어(세계일보 3월 22일

皇甫永春기자)

●그림동화 「팬더이야기」...한·중·일 합작으로 출간 / 한국인 강우현씨가 그림맡아 화제 / 북경게임 앞두고 내년 3국 동시출간(세계일보 3월 22일 朴正鎭기자)

●기획 돋보이는 '시사해설서' 풍성-민감한 현안문제 과감히 파헤쳐 호응 / 평양축전·김현희·주한미군 등 때맞춰 펴내 / 사건이해·진상규명·해결책 마련에 도움(한겨레신문 3월 23일 신연숙기자)

●정기간행물 "봄"-하루 2~3개 새로 나온다 / 일년새 1,170종 쏟아져 총 3,588개로 / 전문화추세 속 저질범람 문제점도 심화(스포츠서울 3월 24일 오정국기자)

●"전집류 할인판매...출판계논란"-서적정가 지키기 쟁점으로 떠올라 / 도서출판중앙회, 65%까지...5개월 할부 / 출판협 등 "유통질서문란" 판매중지 주장(서울경제신문 3월 24일 姜升遠기자)

●한미관계 비판서적 출간 "봄"-파행적 역사 책임의 일단을 美에 물어 / "左에 치우쳐 오도 가능성... 여과과정 아쉬워" (중앙일보 3월 25일 李憲益기자)

●"기존" 폭파한 '소리없는 투쟁'-이인성작 「한없이 낮은 숨결」 / 언어조직 강그리 해체해버린 독설...줄거리·주제없이 지배체제에 반기(세계일보 3월 26일)

●'주부들의 이야기' 출간 봄-자녀 교육 살림살이 애환 등 담아 / 해외주재원 부인들의 체험담도(동아일보 3월 27일 金順德기자)

●"무명시인 작품집 서점가 휩쓴다"-주요서점 베스트10 독차지 / 카페·화장실서 낙서 등 모아 / 캠퍼스의 진솔한 얼굴 투영(세계일보 3월 28일 梁憲錫기자)

●각종학회, 연구논문·학술지 출판 활발-단행본·무크지·계간지 등으로 / 재정자립에도 도움...독자 늘여(중앙경제신문 3월 28일 金龍善기자)

●"붕당정치 긍정적으로 평가"-「조선후기 사학사연구」 낸 韓永愚교수(동아일보 3월 28일 宋煥彥기자)

●金大中著 「대중경제론」 3년만에 햇빛-'靑史' 대표 咸泳會씨 법정투쟁 끝 승소 / 83년 허버트大 국제문제 硏제출 영어논문 / 압수서적반환 첫 케이스...출판계 여파 클 듯(경향신문 3월 28일 孫東佑기자)

●노동문제 전문출판사 늘어-정기간행물·교양지 등 창간기획 / 분야

별로 전문화역할 분담피해(한국일보 3월 28일)

●"책제목에 옛글씨 다시 쓴다"-古書중 필요한 글자 찾아 조합 / 한글고유의 아름다움 돋보여 / 출판계 '다양한 활자꼴 개발하자' 목소리도 높아(한국일보 3월 28일 徐華淑기자)

●"출판계에 도 주5일근무제 바람"-84년 첫 도입...10여개사 이미 정착 / 직종 특성 맞고 효율커 늘어 날듯(한겨레신문 3월 28일 신연숙기자)

●"누구나 읽을 수 있게 문장 다듬어"-「자본론」 첫 완역해낸 김수행 교수 / 원래 영국노동자 대상으로 쓴 쉬운 책 / 전문 제대로 읽어 학문적 균형 이루길(한겨레신문 3월 31일)

●"활자보다는 그림... '만화문화' 활짝"-낚시·바둑 등 레저소재 불티...출판 판도 바뀌(조선일보 3월 31일 泰聖昊기자)

●"국가의 흥망...미래의 전망"-국가전략 도서류 불티나게 팔린다 / 「5년후의 韓國」 한달새 5만거듭 / 시국불안·호기심 반영 / 대부분 미·일학자...경제분야 분석(조선일보 3월 31일 崔球植기자)

●불운의 두 화가 '영혼시집' 화제-요절한 최옥경 「낮설은 얼굴들처럼」 / 신체장애 황진 「나는 지금 누워 있습니다」(스포츠서울 3월 31일 오정국기자)

●"실험소설, 신선한 변화추구"-「한없이 낮은 숨결」 펴낸 이인성씨 / 독자에 질문 던져 작품세계 참여도(동아일보 3월 31일 高美錫기자)

●'책에 관한 책' 36권째 출간-出版·書誌學의 황무지 일귀 우리식 이론정립(세계일보 4월 2일 申敏亨기자)

●"성문제 이전 자유로이 말할 때"-첫 에세이집 「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」 펴낸 馬光洙교수 / 「尹東柱연구」로 박사학위...문학이론서 등 저서 5권(경계신문 4월 3일 安健赫기자)

●아이프마토프 장편소설 첫 소개-청계연구소, 蘇작가동맹과 정식판권 계약 / 神과 종교문제 밀도있게 다룬 「처형대」 나와(국민일보 4월 3일 權赫鍾기자)

●미술서적, "다양·전문화하고 있다"-美術史무크지, '산그림'집 출간 / 孫詳基씨 등 遺作展 맞춘 책도(한국일보 4월 3일 朴來富기자)

●한국 일러스트 "세계수준 발돋움"-康禹鉉씨 「사막의 공룡」 日출판문화상도 수상 / 북경아시아게임 마스코트 '팬더'제작(중앙일보 4월 4일 李憲益기자)

●민족시인 申東暉 20周忌-대표작 「錦江」 단행본으로 출간 / 강연회 등 통해 작품세계 조명(중앙경제신문 4월 5일 朴海鉉기자)

●"해체주의 두 거장에 주목"-'미셀 푸코', '르 클레지오'의 저작 연구서 잇달아 / 기존질서 거부 절대 자유 강조 / 국내문단 흐름에 큰 영향 미칠 듯(중앙일보 4월 5일 李京哲기자)

●"시대의 고전, 뿌리내리는 스테디셀러"-「廣場」 「사람의 아들」 「土地」 등 중판 거듭 / 尹東柱·趙炳華 등 시집도 독자관심 끊이지 않아... 서점들 특별코너 마련(세계일보 4월 5일 梁憲錫기자)

●"새 「白凡逸志」 나왔다"-李東寧 후손 소장본 전문실어 / 기존 출간본은 원본의 3분의 1 누락(중앙일보 4월 10일 李憲益기자)

●공공도서관, "제자리찾기"-'공부방' 역할서 지역문화공간으로 / 교양·주부교실...청소년 지도도 / 기념주간 맞아 무료개방·강연 등 행사 다채(경향신문 4월 10일 安健赫기자)

●미완의 한국문학사 새로 쓴다-정과리·홍정선씨 공동작업...조동일씨 「한국문학통사」 마무리단계 / 이데올로기·언어관계 추적...분단시대 규명(한겨레신문 4월 11일 조선희기자)

●"운수업서 자본주의 씨앗 찾아"-「朝鮮후기 船運業史연구」 펴낸 崔完基교수(서울시립대) / 16세기 官漕運봉괴후 私船발전 / 변혁운동에 참여...병폐도 파헤쳐(한국일보 4월 11일 徐華淑기자)

●"蘇이해 길잡이책 기대"-「러시아 소비에트법」 펴낸 金徹교수(숙명여대) (동아일보 4월 11일 宋煥彥기자)

●창간30돌 맞은 「시사영어연구」-「대학생 위한 전문잡지」 첫출발(조선일보 4월 11일 崔球植기자)

●具常 시선집-"뒤레푸스의 벤취에서" 영역본 나온다 / 40여년 동안 지은 시 대표작모음 / 86년엔 불란서 문단에 소개돼 화제(서울신문 4월 11일 李憲淑기자)

●"人乃天의 평등사상에 끌려"-동학소설 「하늘보고 땅보고」 쓴 姜仁秀씨 / 3년간 北接지역 찾아...행적

탐사 / 송고한 인본주의 널리 알리고 싶어(서울경제신문 4월 11일 姜升遠기자)

●"명량소설 큰 인기"-TV코미디 세대에 적중...스테디셀러로 정착 / 崔仁浩 등 유명작가들도 가세...동화에 새바람(세계일보 4월 11일 申敏亨기자)

●「옥스퍼드사전」 개정판 나왔다-7년만에 총20권 2만쪽 분량 / 50여만 단어 수록, 한질 가격 172만원(한국일보 4월 12일 柳東熙기자)

●鄭玄宗, 시집·시론집 동시에 펴내-생명에 대한 외경·희열 노래(중앙경제신문 4월 12일 朴海鉉기자)

●통일논의 책 출간 활기-시중에 나온 것만도 줄잡아 70여종 / 구체적 절차방법 미래상까지 제시(매일경제신문 4월 12일 李奉濤기자)

●정치경제학강좌 인기-관련서적 출간봄 / 학문균형 발전 위해 바람직(경향신문 4월 12일 孫東佑기자)

●출판화제-朝鮮日報 학예기사색인 나와 / 사진식 편집...8만7천2백 93件 수록 / 2번째 신문만평 묶어... 김성환 외 著 「사회만평」 옥중연시 69편 정리...김남주 著 「산이라면 넘어주고 강이라면 건너주고」(조선일보 4월 13일)

●「白凡逸志」全文 출간-金九선생 肉筆本...축약부분 되살려(한국일보 4월 13일)

●소설 「土地」는 바른 여성관 결여-무크지 「여성3」서 비평계 / 서회 등 미화...당시 사회상 못담아 / 조각쟁의 현실의면 역사왜곡도(한국일보 4월 13일 徐華淑기자)

●소장 국사학자들이 공동편찬-「한국사강의」 불티나게 팔린다 / 남북의 통일정책 등 近·現代史 중점 / 민주화 원하는 사회분위기 힘입어(중앙일보 4월 13일 康英鎭기자)

●"책 안팔리면 제목 바꿔라"-출판가 이색아이디어 작중 / 호기심 끌게 바꾼 개작본들 날개돋쳐 / 「성자가 된 청소년부」는 14만부 팔리기도(스포츠서울 4월 14일 오정국기자)

●"북한원전 출판 관장기구 설치"-저작권 심포지엄 지상중계 / 拉越北작가 작품도 법적보호 필요 / 저작권분쟁...조정제도 활용 바람직(서울신문 4월 14일 李憲淑기자)